



보노아이씨티 '보노앤코 키즈램프'

“자세가 비뚤어요” ... 잔소리해주는 LED램프

“자세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바르게 해주세요.” 보노아이씨티가 지난 2월 출시한 인공지능(AI)형 자세 교정 어린이 LED(발광다이오드)램프 보노앤코 키즈램프가 한 말이다. 사용한 지 30분이 지나면 “너무 오래 책을 봤어요. 눈을 잠시 쉬어주세요”라고 지적한다. 이 제품은 ‘아이들의 바른 자세가 공부의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생각에서 개발됐다. 사용자의 자세와 독서 시간을 자동 인식하는 시스템이 내장돼 있다. 출시 후 광고를 따로 한 적이 없다. 제품을 써 본 부모들 사이에서 ‘잔소리 스탠드’라는 별명을 얻으며 입소문을 타고 있다.

◆로봇 모양-초음파 센서 부착
임형주 보노아이씨티 대표는 보노앤코 사용층을 어린이로 정한 만큼 제품에 특히 신경 썼다. 중심을 낮게 설계하고 램프의 몸통을 목직하게 제작해 아이들이 손으로 쳐도 스탠드가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했다. 떨림 없는 고효율 LED 조명을 사용했고 무단계 광도 조절 기능을 적용, 아이들의 눈을 보호할 수 있다. 본체엔 LG화학 친환경 페인트를 칠했다. 친환경 실리콘과 금속관으로 특수 제작한 호스를 사용해 높이와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디자인도 귀엽고 독특하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로봇 모양으로 설계했다. 램프의 얼굴 부분에 초음파 거리 센서 두 개가 부착돼 있다. 고스트월드 스티커 3종을 동봉, 아이들이 램프 얼굴 부분에 붙



임형주 보노아이씨티 대표가 보노앤코 램프를 설명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

초음파 거리센서가 자세 측정 친환경 소재로 어린이용 안전설계

음성인식 분야 원천기술 보유 “소비재로 제품군 확대 목표”

일 수 있도록 했다. 3년간 무상으로 사후 서비스(AS)를 해 준다. 임 대표는 “초음파 센서가 아이와의 거리를 자동으로 측정해 음성이 나오는 원리”라며 “시력 저하를 방지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유도해 소비자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어린이용으로 개발한 제품이지만 ‘잔소

리 음성 기능’ 때문에 수험생 취업준비생 등 성인들도 많이 사간다. 온라인몰과 오픈마켓, 롯데백화점 편집숍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 호찌민의 롯데마트 고법점에서 연 행사에서 ‘완판’됐다. 가격은 3만 원대다.

◆ICT 응용해 제품군 확대
보노아이씨티는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CT) 전문기업이다. 이 회사가 개발한 위급상황 음성인식 모듈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음성으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다. 근저 20m까지 소리 인식이 가능하다. 제품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폐쇄회로TV(CCTV)를 설치

보노아이씨티	
설립	2016년 10월
위치	대전 유성구 가경로
주요 제품	보노앤코, 위급상황 음성인식모듈 등
특징	TIPS 기술창업지원사업 선정

할 수 없는 공중 여자화장실, 공원 구석진 곳, 골목길 등에 설치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울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쇼 CES에 출품하기도 했다.

지난해 선보인 ‘위급상황 음성인식 영상보안관제 솔루션’은 기존 음성인식 모듈 시스템에 카메라 기능까지 추가했다.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음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CCTV 카메라가 화전해 관제센터로 영상 팝업 모니터를 실시간 제공한다. 보노아이씨티는 보노앤코를 시작으로 해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제품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세 가지 색 온도 변경 및 무단계 밝기 조절 기능을 장착한 ‘보노앤코 유노이아 미니’, 음성으로 천장 전등을 켜고 끌 수 있는 ‘보노앤코 유노이아 실링’ 등이다. 임 대표는 “음성 인식 분야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 (sjlee@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www.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개성공단 기업, 이르면 이달 말 방북 “시설점검 협의때 기업 목소리 반영을”

비대위, 방북시기·규모 협의
내달 美하원에 재가동 설득 예정

개성공단 입주 기업	
기업 수	125개
폐쇄	2016년 2월 북한 4차 핵실험 후 가동 중단
피해 규모	1조 5000억 원(비상대책위 추산)
방북 승인	지난 17일 시설 점검 허용

자료: 개성공단기업협회

정부가 지난 17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방북 신청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입주 기업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2016년 2월 폐쇄된 이후 3년 3개월 만에 공장 점검이 허용됐기 때문이다. 방북 시기와 설비 점검 방식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최종 목표인 개성공단 재가동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중소기업부도 19일 방북 허가에 긍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중소기업부는 “(방북 허용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에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방북하는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뒤 단계적으로 관련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어렵사리 방북 허가가 났지만 협의해야 할 과제가 많다. 방북 시기와 일정은 정부와 북측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비상대책위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방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개성공단 시설 점검 방식도 미정이다. 통일부는 “기업인들의 방북은 자산 점검을 위한 것”이라며 “목적에 부합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방북 협의 과정에서 당사자인 비상대책위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자산 점검 때 사진기 사용 여부가 불투명해 설비를 눈으로만 보거나 손으로 만지는 형식적인 절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영이너품의 이종덕 대표는 “충분한 점검이 이뤄지면 최소 하루, 기업별로 두 명 이상 방문이 필요하다”며 “뒤늦게 방북을 허가한 만큼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북단 인원도 협의 대상이다. 비상대책위는 지난달 30일 정경석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을 포함한 입주기업인 193명과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정치인 8명으로 구성된 명단을 통일부에 제출했다. 통일부는 “당사자인 입주기업인 전원이 먼저 방북해서 자산을 확인하고 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치인들의 방북은 적절한 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이 언제 재가동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 회장을 비롯한 비상대책위원들은 다음달 12일 미국 연방하원을 방문해 개성공단 재가동 필요성을 설득하는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수희 기자 suji@hankyung.com

박영선, 첫 해외출장지 日서 ‘中企 세일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뉴스카페

‘케이론 재팬’ 中企 판촉전 참석 “한류 연계해 해외진출 지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이 지난달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지로 일본을 찾아 중소기업의 일본 판로 개척에 힘을 보탤다.

박 장관은 지난 17일 일본 지바시에서 열린 케이론(KCON) 2019 재팬과 연계한 한국 중소기업 판촉전에 참석했다. 이번 판촉전에는 뷰티 29개, 패션 9개, 식품 4개 등 한국 중소기업 50개가 참여했다. 박 장관은 마쿠하리메세 컨벤션에 차려진 전시

부스들을 하나하나 찾아 일본 소비자 반응을 확인했다. 그는 손목에 차는 미니 선풍기를 보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선풍기 제조업체는 현장에서 2000건의 단독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판촉전에서는 120개사 바이어와 316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상담액과 계약추진액이 각각 402억원, 109억원에 달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박 장관은 “한류의 힘과 중소기업의 역량이 얼마나 대단한지 확인했다”며 “한류 콘텐츠와 중소기업 브랜드를 연계해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18일에는 중소기업의 일본 진출 지원 거점인 도쿄 수출인큐베이터(BI)를 방문, 센터 운영시설을 돌아보

며 입주 기업의 목소리를 들었다. 박 장관은 “중소기업의 마케팅활동을 더 지원하겠다”며 “BI를 제조기업 지원 중심에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거점으로 확대해 현지 스타트업이나 벤처캐피탈(VC)과 만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개선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일본 중소기업 근로자복지서비스센터’도 찾았다. 1988년 설립된 근로복지서비스센터는 일본 중소기업 19만여 개, 근로자 143만 명이 가입돼 있다. 1인당 약 6000원의 회비를 내면 보험 서비스와 헬스케어, 휴양·숙박·레저시설 등의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기부도 중소기업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지원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마디프랜드 美 마블과 협업 ‘아이언맨’ 안마의자 한정판매

마디프랜드가 미국 엔터테인먼트 마블과 협업해 개발한 안마의자 ‘팬텀 II 마블 스페셜’(사진)을 한정판매한다.



세계 처음으로 마블 캐릭터를 적용한 안마의자로 500대씩 1000대 판매할 예정이다. 아이언맨의 슈트와 캡틴아메리카의 방패에서 영감을 얻어 제품을 디자인했다. 헤드쿠션엔 캐릭터를 상징하는 마스크와 A 로고를 포인트를 줬다. 외관을 비롯해 가죽 시트와 다리 안마부에 슈퍼히어로를 나타내는 요소를 담았다.

8가지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과 자동 안마 프로그램 16가지를 모두 적용했다. 월 렌탈료는 6만9500원(59개월 약정), 일시불 구매 가격은 525만원이다.

현대L&C, 미국 하넥스 공장 준공

인조대리석 생산 규모 확대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건축자재업체인 현대L&C가 해외에서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 스톤) 생산 규모를 늘리고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현대L&C는 최근 미국 건자재 제조·유통체인 윌슨아트와 2017년 설립한 합작법인(ASM)이 미국 하넥스 공장을 준공했다고 19일 밝혔다.

현대L&C가 해외 공장을 가동하기는 2009년 캐나다 칸스톤 공장 제1 생산라인과 2017년 제2 생산라인에 이어 세 번째다.

미국 텍사스주 템플에 있는 하넥스 공장은 3만3057㎡ 규모로, 연간 30만 장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국내 하넥스 생산 규모의 약 40%에 달한다. 하넥스는 메틸메타아크릴(MMA)계 인조대리석으로 주로 주방가구, 카운터 상판, 병원 학

교 박물관 등 상업 시설의 건축 마감재로 사용되는 소재다.

현대L&C는 이번 공장 준공으로 북미 인조대리석 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단독주택과 대형 아파트가 많은 미국 주거 형태를 고려, 하넥스 공장에는 기존 제품 폭(760mm)을 두 배로 늘린 제품(1520mm)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다. 제품 폭이 커지면 넓은 면적에 안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고 천연대리석과 비슷한 흐름 무늬가 끊기지 않게 연출할 수 있다.

유정석 현대L&C 대표는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해 생산비를 줄이고 납품 기간을 기존 국내 생산·수출 방식의 4분의 1로 감축하는 등 기업 간 거래(B2B) 수주 경쟁력을 높였다”며 “영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지 영업 전담조직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압구정 역세권 “성형외과 병원 최적” 사옥·수익·사업·투자용·빌딩 매각

1. 매각 부동산 개요 (성형타운거리)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19 MK빌딩	면적	대지 772㎡/건물 1,890㎡ (250% 中 현178% 사용)	용도 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일반 미관지구, 지하1층/지상4층
-----	------------------------	----	-------------------------------------	-------	--------------------------------

2. 위치 및 특징 용도

- ◎ 압구정역 : 7차선 광대로변 코너, 전층 약국, 성형외과 입점
- ◎ 추천용도 : 병원, 사옥, 자산운영상, 재단 등 투자용

3. 매각 금액 : 일금 - 삼백삼십억원 (₩33,000,000,000) (융자 280억 가능)

4. 매각 절차 및 주관사 (매매시까지 전속계약)

◎ 자료공개 → 매수의향서 접수 → 우선협상자 선정 → 계약체결 E-mail : mjk365@naver.com

매각주관사 프리엠에셋부동산중개(주) 매각문의 : 010-2009-7767 전속계약 담당 : 민진기